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이란-미국 긴장 재고조..미국증시 하락

- 미국 증시 약세: 3대지수 모두 2% 가까이 하락
- 이란-미국, 서로 "더 강한 공격" 경고..유가 상승
- 5월 CPI YoY 4.2%↑'3년래 최고'

Investment Strategy
2026.6.11

Mirae Asset Research AI

본 조사분석자료는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습니다. 본 자료 마지막에 안내된 중요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수]
김주연
Jooyoun.kim@miraeasset.com

Summary

미국증시 하락: 다우 -1.87%, 나스닥 -1.98%

6월 10일(현지 시각)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일제히 하락 마감. 이날 발표된 소비자물가지수는 시장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오히려 하회하는 수준으로 고물가로 인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를 다소 완화시킴. 다만 미국과 이란이 전일부터 실제 공격을 주고받았으며 더 강력한 공격을 경고하고 있어 사태 악화와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 시장 하락 요인으로 작용함.

다우존스 산업 평균 지수가 1.87% 하락한 49,918.78에 거래를 마쳤고 S&P500지수는 1.62% 하락한 7,266.99에 거래를 마침. 나스닥 지수는 1.98% 하락한 25,169.50에 마감했으며 나스닥 100도 1.98% 하락 마감. 중소형주 지수 러셀2000도 1.10% 밀렸고 변동성지수 VIX는 11.83% 급등한 22.22에 마감.

(다우 -1.87%, 나스닥 -1.98%, S&P500 -1.62%, 러셀2000 -1.10%)

고유가 영향..5월 소비자물가 YoY 4.2%↑

이번주 시작과 함께 시장이 주목했던 5월 물가 지표가 공개됨. 미국 노동부는 5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1년 전에 비해 4.2% 상승해 시장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밝힘. 이는 2023년 4월 4.9% 이후 3년 1개월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 전달 대비 상승률은 0.5%로 역시 예상에 부합. 다만 변동성이 큰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CPI는 전년 동기 대비 2.9% 상승했고 전달에 비해서는 0.2% 상승해 직전달 대비 상승폭을 줄이며 시장 예상치도 하회. 이는 전쟁으로 급등한 에너지 가격이 헤드라인 물가 지수 상승을 주도했음을 시사하는데 실제 물가 상승의 상당 부분은 에너지 가격이 주도함. 에너지 가격은 전달 대비 3.9% 상승했고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선 23.5% 폭등. 이외 식품 가격은 전달 대비 0.2% 상승했고 주거비는 0.3% 상승한 반면 운송서비스 가격은 0.6% 하락했고 신차 가격은 0.3% 하락. 즉 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 수준을 끌어올리고 있기는 하지만 이는 아직 에너지 부문에 머물러 있으며 경제 전반으로 그 효과가 확산하는 2차 물가 상승으로까지는 이어지고 있지 않다는 것. 결국 향후 물가 흐름의 최대 변수는 고유가가 얼마나 지속되는지에 달렸음. 이란 전쟁이 장기화되거나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지속돼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면 아직은 제한적인 '2차 물가 상승'이 현실화되며 헤드라인 뿐 아니라 근원물가까지 끌어올릴 가능성도 존재. 연준은 오는 16~1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를 앞두고 있음. 이번 회의에서는 금리 동결이 유력함. 다만 최근 고용 지표가 호조를 보이고 있어 완화적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가 한풀 더 꺾인 가운데 연준이 물가와 고용에 대해 내놓을 메시지에 시장은 주목.

한편 캐나다 중앙은행(BOC)는 이날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정책금리를 현재 2.25% 수준에서 동결함. 다만 티프 맥클렘 캐나다 중앙은행 총재는 "중동 분쟁이 지속되고 높은 에너지 가격이 전반적이며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하기 시작한다면 통화정책에 더 많은 역할이 요구된다"며 "정책금리를 연속적으로 인상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함.

트럼프 "더 강한 공격" vs. 이란 "맞설 것"

유가의 방향성이 향후 인플레의 성격과 강도, 그리고 그에 따른 연준의 통화 정책에 가장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현재 유가를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변수인 중동 지역 지정학적 이슈는 여전히 시장 방향의 키(key). 이날은 미국과 이란을 둘러싼 긴장이 한층 고조되는 한편 다만 협상의 여지도 남아있음을 시사하는 메시지가 나와 시장도 사태 악화 가능성을 가격에 반영하는 한편 희망을 놓지 않는 모습을 보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오후, 이란의 드론 공격으로 미 육군 아파치 헬기콥터가 격추된 데 대한 보복으로 전날 이른바 '자위적 공습'을 단행. 이란 역시 이에 맞서 반격에 나섰으며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어제 이란을 강하게 때렸다. 오늘 더욱 강하게 다시 타격할 것"이라고 밝힘. 그는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에 대한 공습이 임박했다고 말함. 이렇게 경고 수위를 높이는 한편으로 "이란과의 협상에 있어 우리는 정말 합의에 가까워졌다"며 "그들이 서명을 앞두고 자꾸 시간을 끌고 있는데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보겠다"고 말해 합의 마무리 가능성을 열어둠. 이에 대해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줄인 이란 핵심 기반 시설을 표적으로 삼겠다는 위협은 힘의 과시가 아닌 절박함의 방증일 뿐"이라며 "이란은 어떤 압박이나 위협에도 굳게 맞설 것"이라고 밝힘. 미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는 미국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합의는 가능하지만 이란의 협상 지연이 이어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결국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고 준비가 돼있다"고 보도하기도.

한편 양측의 극단적 메시지들에 상승하던 국제유가는 장 중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봉쇄로 호르무즈 해협에 갇혀있던 유조선들을 빼내고 있으며 이를 통한 석유 공급으로 국제유가가 전시임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라고 밝히자 상승폭을 축소함. 그는 때문에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곤두박질칠 것이라고 말하기도.

마감 이후: 미국, 이란 공격 재개

마감 이후 미 국방 장관은 오늘 이란의 핵심 시설들을 폭격할 것이라고 재차 경고 수위를 높였음. 이란은 이에 "공격받을 경우 중동 내 새 미국 표적에 대한 타격을 감행할 것"이라고 맞섬.

이런 가운데 미국은 동부 시각 오후 5시 15분을 기해 이란 내 다중 목표에 대한 타격이 시작됐다고 밝힘. 이렇게 미국과 이란이 강대강으로 맞서며 아슬아슬한 줄타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실제 행동에 나선 미국의 이란 내 타격 범위가 어느 정도일지, 그에 이란이 어떻게 반응할지가 결국 오늘 아시아 증시 방향성을 가를 것으로 보임.

반다리서치 "숏 감마..변동성 확대"

반다리서치는 최근 주식 포지셔닝이 15년만에 가장 급격한 청산을 겪었으며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3일 연속 단일 종목에서 이어지는 등 뚜렷한 순환매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 반다에 따르면 이 같은 현상은 2020년 3월 이후 처음 나타나는 것으로 매도는 주로 반도체 ETF인 SMH와 SOXX, 그리고 AI 관련 대표 ETF인 AIQ와 AIEQ 등에 집중됐다고 분석. 이들 ETF에는 마이크론과 AMD, 마블 네크놀로지 등이 포함돼 있음. 더해서 레버리지 ETF와 CTA에서 발생하는 기계적 매도 압력이 시장 약세를 더욱 증폭시킬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향후 추가적인 하락 위험을 경고. 반다 리서치는 특히 레버리지 ETF에서 숏 감마가 높아져 있어, 비교적 작은 하락에도 강제 매도가 촉발돼 하락세가 자기 강화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임.

국내 증시에 개별종목 레버리지 ETF가 상장된 이후 관련주로 급격한 자금 쏠림이 나타났으며 이번주 초반 있었던 시장의 급격한 하락 변동성 확대 역시 이와 관련된 숏 감마 확대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던 만큼 향후 장세와 관련해 염두에 둘만한 분석으로 여겨짐.

특징종목

AI 기술주, 빅테크 약세: 자금 조달 러시

전일에 이어 반도체주를 비롯한 AI 기술주가 시장 하락을 주도했음. 엔비디아(-3.27%), 브로드컴(-4.63%), 마이크론 테크놀로지(-3.53%), AMD(-4.57%), 퀄컴(-6.92%), 애널로그 디바이시스(-2.95%), 텍사스인스트루먼트(-2.29%), 인텔(-0.81%), 웨스턴디지털(-5.34%), 시게이트(-3.55%), 램 리서치(-1.64%), 어플라이드 머티어리얼즈(-0.44%). UBS의 '반도체 장비주 슈퍼 사이클 초입 진입' 전망에 전일 반도체주 약세에도 선방했던 장비주도 이날은 약세 전환. AI 반도체 업종에 대한 고평가 우려, 예정된 대어급 IPO를 앞둔 자금 확보 차원에서의 주도주군 차익 실현, 그리고 하이퍼스케일러의 잇따른 증자로 부각된 자금 유입 지속 가능 여부에 대한 경계감 등이 이들 종목 주가 약세 요인.

특히 알파벳(-2.16%), 메타 플랫폼스(-2.33%), 아마존닷컴(-3.80%) 등이 최근 잇따라 증자와 외화채 발행 등을 통한 자금 조달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이날은 AI 서버 제조사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27.98%)가 자금 조달 이슈로 급락.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는 AI 서버용 부품 구매 자금 확보를 위해 총 70억 달러 규모의 주식 및 주식 연계 증자 계획을 발표함. 50억 달러 규모의 공모 증자와 20억 달러 규모의 시장 매각 방식 증자를 추진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기존 주주 지분 가치 희석에 대한 우려, 막대한 자본 지출과 그로 인한 잉여현금흐름 급감에 대한 우려 등으로 반영돼 주가 급락으로 이어짐.

아마존닷컴(-3.80%)은 주 초 캐나다에서 최대 140억 캐나다 달러 규모의 5단계 채권 발행을 신청한 가운데 이날 또 씨티그룹 주도의 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175억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 아마존은 미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서류를 제출하고, 씨티 그룹이 주도하는 은행 컨소시엄으로부터 175억 달러 규모의 대출 계약을 체결했으며 이 자금은 일반적인 기업 운영 자금으로 사용될 것이라고 밝힘.

한편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한 오라클(-2.21%) 역시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자금 조달 이슈로 시간외 거래에서 약세. 오라클은 전분기 매출과 EPS가 각각 191억 8천만 달러와 2.11달러로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고 연간 이익 전망 역시 이전 전망 대비 상향 조정. 다만 AI 데이터센터 확충을 위해 200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을 포함한 대규모 추가 자금 조달을 실시한다고 밝힌 부분은 주가에 부담으로 작용. 오라클은 이미 발표한 200억 달러 규모의 신주 발행을 포함해 채권과 주식 발행을 통해 총 400억 달러를 추가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밝힘. 결국 계속 늘어나는 자본 지출과 그를 충당하기 위한 기업들의 자금 조달 움직임이 어느 수준까지 합리적인 것일지에 대한 고민이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부상. 시간외 거래에서 주가는 6% 내외 하락.

운송주 약세

아마존이 배송 서비스 확대를 발표하자 주요 트럭 운송 업체들의 주가가 급락. 아마존은 LTL, 이른바 부분 트럭 적재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발표. 이 서비스는 아마존이 지난달 공개한 '아마존 공급망 서비스' 패키지의 일환으로 기존 LTL 업체들의 사업을 잠식할 것이라는 우려를 키우고 있음. 모건스탠리는 관련해 아마존이 당장 최고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할지라도 결국 상당한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올드 도미니언 프레이트 라인(-5.14%), 페덱스 프레이트 홀딩스(-6.96%), 사이아(-3.25%) 등이 장 중 낙폭 확대. 다만 저점 대비 낙폭은 축소.

금값 하락에 관련주 동반 약세

국제 금값이 지속 하락 중. 지난밤 국제유가 상승과 맞물려 시카고 파생상품 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나흘째 하락세를 지속. 한 때 4,100달러 초반대까지 하락하며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는데. 씨티는 중동 위기 장기화와 고금리 우려가 이어져 금값이 현재 수준에서 20% 가까이 더 떨어질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이와 함께 관련주도 약세. 뉴몬트(-5.86%), 앵글로골드 아샨티(-7.06%), 하모니 골드 마이닝(-3.99%), 골드 필즈(-5.52%), 배릭 마이닝(-5.01%), 헤클라 마이닝(-3.17%). ISHARES MSCI GLOBAL GOLD MINERS ETF(RING)(-5.15%), SPDR GOLD SHARES TRUST(GLD)(-4.15%).

이외 유가 상승으로 에너지주가 상승했고 전반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방어적 성격의 통신, 유통, 식료품, 유틸리티 업종 정도가 상승했을 뿐 대부분 업종군은 약세 마감.

채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국제유가 반등

국제유가는 재차 반등. 전일 미 육군 아파치 헬기 격추를 문제삼아 미국이 이란에 이른바 '자위적 공습'을 단행했고 이에 이란이 재차 반격하는 등 양측의 충돌이 이어짐. 이어 도널

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현지시각 10일) 이란을 더 강하게 타격할 것이라고 예고했고 이란도 이에 굴하지 않겠다고 맞서며 국제유가는 상승세.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해군에 호르무즈 해협 상선 선박 호위를 지시한 이후 현재까지 200여척이 해협을 통과했고 1억 배럴 이상의 석유가 시장에 풀렸다고 밝히자 상승폭은 일부 축소.

뉴욕상업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서부텍사스산원유(WTI)는 2.07% 상승한 배럴당 90.03달러에 마감했고 브렌트유 8월물은 1.80% 상승한 배럴당 93.10달러에 마감.

이날 미 에너지정보청(EIA)은 전주 미국 원유 재고가 직전주에 비해 722만 7천 배럴 감소했다고 밝힘. 시장 예상은 400만 배럴 감소였으며 이로써 원유 재고는 7주 연속 감소세. 다만 휘발유 재고는 소폭이지만 2주 연속 증가.

국제 금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공격 위협에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하락. 시카고파생상품거래소그룹(CME) 산하 금속선물거래소(COMEX)에서 8월 인도분 금 선물은 3.56% 하락한 트로이온스당 4,133달러선을 기록. 금선물은 이로써 나흘 연속 하락 중이며 한 때 4,128달러대까지 하락해 지난해 11월 이후 7개월만의 최저치를 기록하기도. 7월 인도분은 선물 가격은 1% 내외 낙폭으로 온스당 64달러대를 기록함.

미 국채금리 상승

미 국채 금리는 전체 구간에서 상승.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위협의 수위를 높이면서 국제유가가 상승, 국채금리를 끌어올림. 이날 공개된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이 전반적 인플레에 미치는 영향이 아직 제한적임을 시사했지만 중동 이슈에 묻혀 국채 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뉴욕 채권 시장에서 2년물 국채 금리는 2.5bp 상승한 4.143%를 기록했고 10년물 금리는 3.6bp 상승한 4.552%를 기록. 30년물 금리는 3.3bp 상승한 5.029%를 기록.

이날 미 재무부는 10년물 국채 입찰을 진행. 수익률이 지난해 2월 이후 최고치인 4.538%로 결정됐지만 시장 예상보다는 소폭 낮은 수준으로 나쁘지 않은 결과.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FFR) 선물시장은 연준이 오는 12월까지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을 전장 대비 32% 수준으로 가격에 반영함. 연내 금리를 한 번 인상할 가능성은 43%대로, 두 번 인상할 가능성도 23%대를 각각 기록.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은 1% 미만 수준. 대체로 전일과 비슷한 수준에 머무름.

달러 강보합

미국 달러화 가치는 소폭 상승. 오전 미국의 5월 소비자물가지수가 공개되며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기도 했지만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유가와 금리가 상승했고, 달러 역시 소폭 상승 반전.

주요 6개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00.018로 0.11% 상승. 엔화는 달러-엔 기준 여전히 160엔 위에 머무르며 엔화의 상대적 약세를 반영. 유로-달러

환율은 보합에 머물렀고 파운드-달러 환율은 0.05% 가량 하락.

한편 전일 서울환시 주간 거래 종가를 1,524.20원에 형성한 달러-원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4원 하락한 1,520.20원을 기록. 뉴욕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에서 달러-원 1개월물은 최근 1개월물 스와프포인트(-1.35원)를 감안하면 전장 서울외환시장 현물환 종가 대비 0.95원 하락한 1,521.90원에 마감함.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